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내용 공개 - [5차] 극장 운영 · 기획 · 제작 분야 그룹 -

□ 회의 개요

- 회의명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 일 시 : 2019.2.20.(수) 15:00~17:00
- 장 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3F)
- 참석자 : 총 13인(예술인 패널 6인, 예술위 7인)

구분	성 명	현 직
극장 운영 · 기획 · 제작 분야 패널 6인 (가나다순)	고강민	극공작소 마방진 대표
	심정민	무용평론가
	오현실	(재)국립극단 사무국장
	임소영	(재)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
	전흥기	공연기획 MCT 대표
	허지혜	(주)연극열전 대표
내부 7인	안신희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운영자문위원장, 장계환 극장운영부 부장, 진용남 무대예술부 부장 외 극장운영부 직원 4명	

□ 주요 논의 사항

-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 극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 현장 논의 내용

※ 발언자 표기는 편의상 ‘패널(예술인 패널)’과 ‘진행자&위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구분합니다.

진행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일반현황 소개. 2018-19년도 사업예산 및 기획 사업, 대관 현황, 극장별 공연 실적 등 공유 후 논의 주제 설명

[안건1]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진행자: 아르코예술극장이 곧 40주년을 맞는다. 개관 당시 극장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150여개 소극장들이 모여 있는 대학로가 되었다. 아르코예술극장은 대학로예술극장이 생기면서 함께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로, 201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통합으로,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휩쓸리며 지난 몇 년간 극장이 제 역할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로라는 공간 안에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다.

패널: 축제의 경우 시기 선점을 먼저 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라도 일반 단체들에게 대관 가능일자를 미리 공지해주어야 한다. 무용계에 있어 중요한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와의 맞물린 시기로 대관 탈락하여 하는 수 없이 서울 외곽으로 돌았던 팀도 많았다. 일반단체들에게 축제 외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기를 제대로 공지해서 기간 선택권을 주면 좋겠다. 작품의 질적인 평가가 아닌, 축제와의 맞물린 시기 문제로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패널: 대관심의를 할 수 있는 일자가 너무 적다. 창작산실이 예술위 사업이긴 해도 쇼케이스까지 여기서 할 필요 없지 않은가. 서강대학교 메리홀이나 강동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도 괜찮다. 그 많은 쇼케이스 기간에 차라리 일반 대관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위 사업들 대관과 기간이 맞물려 또 다른 외곽 극장에서 공연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좋은 작품이었는데 빛을 못 봐서 아쉬웠다. 무용은 극장이 어디냐에 따라 레벨이 3~4단계씩 달라진다. 무용계에서는 가장 좋은 극장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다.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 자괴감을 느끼는 단체들이 많다. 이 극장에서 작품다운 작품이 많이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

패널: 무용계는 80~90%의 지원금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지원심의 탈락 결과가 늦게

나와 대관 선정된 분이 공연을 올리지 못해 극장 위상에도 해를 끼쳤던 경우가 여럿 발생했었다. 소위 땀땀 식으로 들어간 무용가들이 정해진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커튼으로 가린 채 러닝 타임을 보내는 불상사도 있었다. 대관 선정에 있어 지원금 심의와의 시기 조절이 꼭 있어야 충격이 덜하다.

진행자: 굵직한 무용제들, SPAF, 서울연극제 등 축제들과 기간이 상충되다보니 일반 단체들이 뭇 모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축제를 먼저 챙겨 시기를 정하고 나머지 기간들에 대해 오픈 공지를 하고자 이번 대관 공고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거였다. 일반 단체와 축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축제 선별 작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거듭하며 다듬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심의와 극장 대관 선정 기간에 대한 딜레마도 마찬가지다. 공연은 공연장 확보가 우선이라 현장에서는 늘 빨리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11월 대관 발표를 했을 땐, 국회 예산 심사가 12월인데 왜 그보다 앞서 발표하느냐고 국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원금 심의가 좀 더 서둘러주면 좋을 텐데, 기간 조정문제는 정말 앞으로 해결책을 강구해봐야 할 거다.

패널: 연극단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연극인들에게는 존재감이 없었다. 기획이나 대관 모두 좋은 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 막상 대관 신청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체들이 원하는 주요 시기에는 축제가 다 들어가 있다. 단체 측에서 힘주고 싶은 작품들은 지원할 수 없고 작은 공연들만 신청하게 된다. 하향평준화 되거나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음을 느끼지만, 이도 저도 아닌 흐름 같다. 1~2주짜리 일반 대관 말고 아예 전체를 기획제작 형태로 단체들과 같이 가는 방향이 현실성 있지 않을까. 가령 남산예술센터나 국립극단은 민간단체와 공동제작 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제작비가 많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다.

패널: 2주씩 짧게 가는 공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선 아마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유일한 것 같다. 외국 극장들을 보면 그 룰을 다 지키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은 재단법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돈 되는 공연들을 3개월씩 한다. 일반 단체들에게 고루 기회를 주려면 다른 극장들도 전반적으로 그 룰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패널: 국제행사나 축제들은 대관을 2~3년 단위로 장기 선정하면 어떨까. 축제의 경우 아르코예술극장이 아니면 질이 달라지는 행사들이 더러 있다. 올해 했으니 내년에도 당연히 대관될 거란 기대를 심어주지 말고, 평가를 통해 2~3년 치 결과를 미리 알려주자. 그래야 대관 선정이 안됐을 경우 다른 극장을

알아보며 차선책을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 서울연극제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떨어져 반란 사태가 일었던 예전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이다. 대신 일반 단체들의 항의를 피하려면 축제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작품의 질, 운영, 홍보마케팅 등 축제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2~3년 단위 대관 선정을 하고, 그런 방식이 누적되다보면 점차적으로 축제를 거르는 작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 같다.

패널: 일반 단체의 경우 스케줄이 바뀌고 작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2~3년 단위 대관 선정이 어렵지만 축제는 가능할 것 같다. 기본 7~8개 작품들을 소화해야 하는 축제의 경우, 만약 예상했던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에서 떨어지면 여러 작품을 각각 다른 극장에서 걸쳐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극장 대관료 차원에서도 아르코예술극장과의 편차가 심하니 예산의 어려움까지 겪는다. 다만 축제와 축제 간의 경쟁이 매우 조심스럽다. 탈락 기준과 사유에 대한 민원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 견제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패널: 그래서 예술감독제보다는 운영위원회 체제가 필요하다. 그 안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20년 넘은 축제들이 꽤 된다. 지역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 올리는 축제들에 대해 1~2년 연속 제대로만 평가하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르코예술극장은 모든 축제의 무대가 아니라, 양질의 축제를 생성해내는 극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외국 기획자들도 아르코예술극장의 축제 작품들을 찾아 발탁할 테고, 그런 과정을 통해 축제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축제들이 웬만하면 지원금을 받고 아르코예술극장에서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 대관선정에 떨어지면 무조건 항의부터 하는 상황들이 사라져야 한다. 그 사유를 대려면 극장 자체에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진행자: 사실 그동안 축제 기획서와 대관 신청서가 매우 성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축제 운영방향 계획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면 대관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갈 것이다.

위원: 축제 대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이 늘 공존할 것이다. 올해 시행을 시작으로 점점 평가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심의 때 보면 축제 협회들의 서류라는 게 그저 자료들만 잔뜩 모아 제출하는 정도였다. 축제도 어떤 지표를 정확히 가지고 차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아가야 한다. 아무리 그동안 잘 해왔던 축제라 해도 올해 봤을 때 아니면 내년 대관에서는 떨어뜨려도 되는 것 아닌가. 누굴 봐주고 안 봐주

고의 문제가 아니다.

패널: 2~3년 단위의 대관을 미리 해주자는 건, 탈락했을 때의 어려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주자는 배려 차원에서다.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 측에서는 갑자기 대관 탈락되어 극장을 변경하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내년까지는 여기서 하지만 내후년엔 다른 극장에서 해야 한다는 상황을 미리 알게 된다면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든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패널: 축제 위주의 대관 방식을 새로 공고했다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그동안에도 굵직한 축제들은 항상 여기서 펼쳐지지 않았다. 축제는 축제대로 운영되고, 그 나머지 기간 대관에 대해서 극장이 일반단체와 공동기획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패널: 무용과 연극 쪽 상황이 많이 다르다. 대학로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아르코예술극장은 정말 위상이 큰 공연장이었다. 소극장이어도 공연에 대한 관심이 늘 생겼고, 극단들 역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도 여기서 공연하고 나가면 다른 곳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창작플랫폼으로서의 신뢰도도 컸다. 서울연극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대학로 나들이가 너무 즐거울 만큼 작품들이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연극제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 대한 흥미, 솔직히 없다. 여기서 올라가는 공연들에도 기대감이 별로 없다. 축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좋으면 축제 질이 좋아지는 거고, 그 축제를 보러 아르코예술극장도 찾아오는 거다. 다 연결되는 문제다.

패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연극체계 지원 방향이 아마추어 작품을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상업공연을 하는 곳은 평가절하 되는 측면도 있다. 연극열전 작품들은 순수예술로 구분되지 않으니 아예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거기까진 동의한다. 그러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대전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물음표다. 이 공간이 관객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야 할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무엇보다 관객이 공연작품들에 관심 갖게 하는 게 1번이다. 예를 들어 축제가 메인이면 축제 선별 작업에 집중하고, 이것이 관객에게 제대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한다.

패널: 그동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방향성이 4가지 측면(기획, 제작, 대관, 전용극장)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용극장에 방향성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야 창작자들이 체계적인 창작 시스템과 극장형 공간에서 안정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아르코예술극장이 처음부터 연극·무용 극장으로 출발했으므로 이곳은 연극·무용 전용극장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내가 무용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

대학로예술극장만이라도 무용전용극장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현대무용은 대부분이 창작 작업인데, 현대무용계의 유일한 국립단체인 국립현대무용단도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서 연습 공간은 있지만 전용극장이나 극장형 스튜디오 같은 창작 공간은 없다. 국립현대무용단은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위해 전속단원을 두지 않고 프로젝트 별로 다양한 민간 무용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분들은 ‘픽업스테이지’에 초청되기도 하고, ‘스텝업’이라는 안무공모 프로젝트를 통해 국립현대무용단의 플랫폼에서 본인 작품을 레퍼토리화 하는데 체계적 지원을 받는다. 현대무용이 많은 관객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예술성을 기반으로 다양성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창작자 층이 너무 얇다. 무용 창작자 분들이 소극장 공연 경험은 많다. 그러나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이나 LG아트센터 같은 중·대극장 규모로 국립현대무용단 시즌 프로그램에 들어와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 만한 창작자는 많지 않다. 이것은 창작자 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안정적 창작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세계적인 작품을 원하는데, 정작 세계적인 창작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창작자도, 작품도 안나오는 거다. 그래서 국립현대무용단에서는 ‘스텝업’ 같은 기획에 공을 들여 지속가능한 창작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한다.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려면 신작을 발표한 후 이것을 계속 재공연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야 하는데 민간의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 2018년부터 안무가 분들의 발전 가능성 있는 기존 작품들이 국립현대무용단 플랫폼에서 최소 2회 이상 재공연되어 레퍼토리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현대무용 전용극장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용극장을 할 만한 공간을 대학로 기준으로 알아본 적이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치면 300억은 필요하더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전용극장이 되면 희망이 생긴다. 그럼에도 전용 자체가 어렵다면 일반 대관보다는 공동 제작이나 기획 대관 형태의 비율을 더 높여 발전 가능성 있는 창작자들에게 안정된 창작 환경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패널: 선택과 집중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전체를 모두 그렇게 가져갈 순 없으니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전에 대학로예술극장을 연극 전용, 아르코예술극장을 무용 전용이라 공표했을 때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런 식으로 서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의아했다. 대학로 안에서 마치 섬 같은 극장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제일 공허한 얘기가 ‘대학로에 150개 소극장이 밀집하고 있다’는 말이다. 극단이 150개라는 말도 아니고, 극장 개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은 몇 개 안되지 않은가.

어찌됐든 대학로는 현재 연극이 특화된 공간이다. 무용 전용극장을 논하려면 대학로에 진행형인 무용 공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다.

위원: 20대 때부터 대학로를 오갔다. 지금이야 대학로 내에서 무용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무용과 연극이 공존하는 동네였다. 상업성이 우세하며 대학로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지만, 대학로에도 다시 무용을 하는 극장들이 점점 생겨나면 좋을 것 같다. 요즘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르코예술극장이든 대학로예술극장이든 무대 스타일에 따라 작품이 나뉘어야지 지금 전용극장을 논할 시기는 아닌 듯싶다.

패널: 좋은 작품이 나오면 자연스레 컴플레인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극장 작품 라인업이 좋다면 굳이 우리 단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불평이 생기지 않게 된다.

패널: 중장기 방향성보다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만의 얘기가 아닌 예술위의 문제인 거다. 예술위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예술가를 대변하는 위치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과도기가 있었고 이제는 예술위 행정가들 중 투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 5번 결혼한 지인이 있는데 엄마가 계속 바뀌니 아이가 결국 자폐아가 되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도 정권과 주관처가 바뀔 때마다 간섭을 피할 수 없으니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패널: 정말 그동안 정세 흐름의 심판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다. 아무리 공공기관이어도 어느 정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만들어주는 기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모든 걸 장기적으로 보고 5개년 계획 정도는 갖춰야 한다. 순환 근무의 덫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상황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

패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예전에 동숭아트센터와 아트원씨어터 등 공연장 사업을 함께 했을 때 참 좋았는데 왜 지속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솔로이스트 기획공연도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이다. 현재 창작산실은 아르코예술극장의 기획인건지 창작산실 담당자 역할로서의 기획인건지 의문스럽다. 프로그램들의 기획과 지속성들이 불분명한 구조가 아쉽다.

진행자: 자율성과 신뢰성, 독립성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느냐, 현장과의 소통을 어떻게 이뤄내고 반영해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항상 고민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예술위가 그리고 극장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복원시켜갈지 고심할 거다. 무엇이든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문체부와 현장 사이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보완해가면서 행정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에는 현장 예술가들과 극장이 매우 끈끈했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도와줄까 하는 신뢰성이 바탕에 있었다. 근데 지금 극장 직원들은 그저 직업인 같은 느낌을 받는다.

패널: 극장운영부와 무대기술부는 공연장 운영을 하며 현장과의 끈끈함을 늘 유지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해서 극장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회원 관리 측면에서는 마케팅과 함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LG아트센터나 두산아트센터 같은 사기업 공연장은 회원제나 티켓 쪽의 모든 시스템이 전투적으로 흘러가는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뭔가 늘 미비한 느낌이 든다.

[안건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진행자: 조직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극장 체계가 여러 번 흔들렸던 게 사실이다. 극장장과 예술감독의 겸임, 예술감독제, 운영위원회 체제 등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거쳐보았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이다. 예술위 속에서의 공공극장이라는 위치, 대학로 역사 위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 계신 예술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패널: 자료를 보면 예술감독제의 장단점에 대해 잘 요약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사례들처럼 예술감독이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지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난 한국공연예술센터 때를 돌이켜보자면 예술감독제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크고 작은 작품들 중에서도 결국 대표할 만한 격은 나오질 않았다. 당시 무용 작품들은 왠지 자질구레한 것들로 부산한 느낌이 었다. 혹여나 개인적으로 이후 커리어에 도움이 되겠다는 편협한 마인드로 접근하는 예술감독이 온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차라리 운영위원회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어 방향 잡아가는 게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다.

패널: 목표와 방향성을 잡으려면 예술감독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다 회계연도 넘어가고 여러 문제들이 산재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운영위원회 체제가 성

공한 사례는 접해보지 못했다. 예술감독을 두고 그 아래 각 파트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는 있다. 축제나 대관, 기획 등을 떠나 목표점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

위원: 외국에는 예술감독 성공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다. 정권 바뀌면 체제가 또 변하고, 예술감독도 입맛에 맞는 케이스대로 시기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 외국처럼 분명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야 한다. 예술감독제가 아무리 좋다 이야기한들 막상 이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온다면 어떡할 건가.

패널: 연극의 경우, 왜 최근에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극단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든다. 연출가가 없는 게 아닐까. 극단만 하던 연출가는 대부분 학교나 기관으로 이동하고, 다른 많은 연출가들은 상업연극으로 몰린다. 걸출한 연출가가 이런 작품 하자 해서 극단 활성화시키고 작품 지원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안되니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예술감독 임기가 정권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는다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아니다.

패널: 극장장 체제였다가 한국공연예술센터 때 예술감독제를 거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그러다가 예술위와 통합되며 지금껏 일관성을 잃어왔다. 예술가의 위상을 위해서도 예술감독제를 계속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타 기관들도 평균 3년 임기제인데 임명되어 현황 파악하는데 1년 걸리고,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새로운 사업방향을 구상해 진행해 보려고 하면 임기가 끝나 버린다. 최소 5년 정도는 되어야 예술감독 임기 동안 철학을 담은 기본 작업을 할 수 있다.

패널: 외국 예술감독은 25년 이상씩 가는 경우도 많다. 종신도 있고 작위가 나오는 시스템까지 있다.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는 아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기인 것 같다.

패널: 우리나라는 걸출한 예술가를 행정가로 키워내는 시스템이 충분치 않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예술감독이라면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안목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능력이 요구된다. 사실 그걸 다 갖춘 분은 없을 거다. 공연이든 행정이든 임기 후 1년 정도는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패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두 제도를 분리해서 가지 말고, 예술감독제와 운영위원회 병행체제를 고민해보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이를 수렴해서 결정권을 쥐고 나갈 감독 역할도 필요하다.

패널: 동의한다.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예술감독 1인 체제의 위험성도 분명 있다. 호불호가 센 사람도 안 될 것 같다.

패널: 국립극단의 경우도 미래를 위해서는 예술감독제와 극장장 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 상 가능하지 않다.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극단은 올해 3개 극장에서 새로 제작해 올려야 하는 작품만 15편이다. 전부 예술감독의 몫이다. 당신은 예술적 지표를 만들려 왔는데 행정현황 파악하다 시간 다 흘러가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 예술행정의 역할이 쉽지 않다.

패널: 기본적으로 관객 분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예술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예술감독제가 맞지 않을까. 사람 성향에 따라 어떤 부분은 작품이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겠지만, 행정감독과 기술·제작감독 등 예술감독을 보좌하는 분들의 전문역량이 높으면 예술감독이 함부로 본인 생각만을 주장하며 극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거다. 예술감독, 행정감독, 기술·제작감독 삼각형의 구도로 이어가고, 지금처럼 각계각층의 전문가 소그룹 모임이 다각도로 이뤄진다면 1인 독점 구도는 어려울 것이다.

[안건3] 극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패널: 참고로 예술위 인터뷰 심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심사위원이나 무용가나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너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다. 결국 예술가들은 그런 심사위원을 위촉한 지원기관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터뷰 심의에 대해 한번쯤 다시 고려해보시길 바란다.

위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예술위와 통합되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나도 의아한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도 한다.

패널: 극장 홍보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대학로라는 지역적 특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로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대학로와 극장 홍보가 함께하는 방법을 제안해보고 싶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디다스와 협력해 선보였던 시민 소통 프로그램인 ‘MMCA 무브×아디다스’ 이벤트를 벤치마킹 해도 좋을 것 같다. 일반인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도슨트의 안내로 전시 투어를 한 후 미술관에서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발레단 무용수가 지도하는 원데이 특강을 통해 춤까지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5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 미술관 전시 투어 후 경복궁 일대를 달리는 러닝 프로그램도 진행하더라. 러닝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비 전액을 미술관과

협력하는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여 아동들의 미술치료나 분쟁지역 피해아동 보호 캠페인에 지원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향유인구 확대 이벤트와 사회공헌을 즐겁게 연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도 무용과 협력하여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해보면 어떨까. 2017년만 해도 진지한 내용의 현대무용 작품은 티켓 판매가 어려웠다. 그런데 관객들의 개별화된 취향에 맞춰 공연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과 홍보하니 2018년부터는 국립현대무용단의 모든 공연이 의미와 재미를 뛰어넘어 공연 시작 한 달 전에 매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무용 관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잠재관객을 못 알아본 거다. 특히 젊은 관객들은 텍스트보다 비주얼을 선호하므로 무용 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